

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<small>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</small> http://www.tta.or.kr	<h1>보도자료</h1>	ICT 표준화와 시험인증의 글로벌 리더
일시	2018. 4. 11(수) 배포 / 배포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
담당	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 ICT융합신산업단 IoT팀 김재은 팀장(031-780-9116), 서장원 선임(9124)	

TTA, 사물인터넷 경량화 플랫폼(LwM2M) 적합성 시험·인증 서비스 개시

- 한국전력공사 『e-IoT 플랫폼 및 디바이스』와 KT 『IoT Makers 플랫폼』 인증 -

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(회장 박재문, 이하 TTA)는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 경량화 플랫폼인 LwM2M(Lightweight Machine to Machine)의 적합성 시험인증 서비스를 개시하여 최초 인증제품인 한국전력공사의 ‘e-IoT 플랫폼 및 디바이스’¹⁾와 KT의 ‘IoT Makers 플랫폼’²⁾에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.

LwM2M은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경량 및 저전력 장치(센서 등)를 관리하기 위해 OMA³⁾(Open Mobile Alliance)에서 고안한 기술이다. 특히, 저전력 광대역 네트워크 기술(NB-IoT, LoRa 등)의 확산에 따라 국내 사업자를 중심으로 ‘17년 하반기부터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시험인증제도가 없어 상호호환성 및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.

TTA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연구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8월에 “TTA Verified 시험인증 전문가 협의체”를 결성하고 국내 기업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험방법 및 인증기준을 개발하였다. 또한, 지난해 12월 OMA의 기술문서를 기반으로 적합성 시험규격을 TTA 단체 표준으로 제정 완료하였으며, 이를 시험할 수 있는 적합성 시험기도 개발 검증 하였다.

TTA 박재문 회장은 “세계 최초로 LwM2M TTA Verified 시험·인증 서비스 개시는 국내 다양한 분야의 IoT 산업 활성화는 물론 IoT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개척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” 고 말했다.

또한, TTA는 이번 인증프로그램 런칭과 더불어 국내 LwM2M 관련 기업에게 시장 확대 및 글로벌 기업과의 상호호환성 검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월에 아시아 최초로 LwM2M TestFest 행사를 판교 기업지원허브 내 글로벌 IoT 시험인증 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. 이번 행사는 LwM2M 기반 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참가비 없이 무료로 참가 가능하다.

※TestFest 참가 신청 홈페이지: <https://www.omaspecworks.org/events/testfests/>

[참고]

- 1) 한국전력공사 e-IoT 플랫폼/디바이스는 발전-송변전-배전-고객에 이르는 IoT 기반 지능형 전력망 서비스에 사용되며 oneM2M, LwM2M 등의 국제표준을 토대로 다양한 전력 현장에 설치된 IoT센서 데이터를 수집·분석·처리하는 솔루션으로 전력시스템에 IoT를 접목하여 지능형 전력망을 구현하는 플랫폼임
- 2) KT GiGA IoTMakers는 손쉽게 IoT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제공하는 IoT플랫폼으로 IoT의 다양한 디바이스를 손쉽게 연동하고 장애를 관리할 수 있으며,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서비스에서 활용 함
- 3) OMA 무선인터넷 솔루션 및 서비스의 국제 민간표준을 정하는 사실표준화 기구로서, 최근 IoT 응용 어플리케이션 표준화를 목표로 스마트빌딩,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활용 중인 LwM2M 표준 제정 추진 중
- 4) 인증서 이미지

